

역삼청소년수련관을 ‘꿈의 요람’으로

봉은사, 내년 1월 개관

서울 강남 한복판 역삼동에 청소년 포교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봉은사(주지 원혜스님)와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원택스님)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청소년수련관 공동 위탁자로 선정됐다.

흥사단, 한국기독교장로회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위탁 신청을 한 가운데 최근 열린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봉은사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위탁신청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얻었다.

2004년 1월 개관하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지하 3층, 지상 6층 연건평 2134평의 매머드 시설로 10월 23일 완공예정이다. 건립비용만 약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대규모 수련관이다.

역삼동내 10만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수련관은 수영장, 체력단련실, 식당, 자료실, 인터넷실, 자치활동실, 멀티미디어교육실, 다목적실, 음악실, 특별활동실, 공연연습실, 소극장 등의 시설이 갖춰진다.

봉은사는 수련관을 청소년 기본법에 입



◇2004년 1월 개관하는 지하3층 지상6층 규모의 역삼청소년수련관 조감도.

“21세기형 청소년문화 전형으로”

인터뷰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어렵게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신 것 조만 알고 있습니다. 소감은?

“그 동안 사회복지 사업이 활발하게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신도님들과 외로 해 준 종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강남불교사원연합회 및 파라미타 등 많은 분들이 도



지 사업의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 사회복지 사업은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하는 보살의 삶의 한축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남구내에 있는 선우어린이집, 연화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했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강북장애인종합복지

관을 위탁 운영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전개하고 있는 작은보시 큰자비 실천운동이 호응이 큰 것 같습니다.

2년에 걸쳐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역 내 주요 사찰과 연합하여 청소년 포교

연건평 2,134평의 매머드...10월23일 완공 수영장·인터넷실·소극장 등 각종 편의시설 새싹학교 운영 등 216개 프로그램 준비 한창

각한 수련시설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소년 육구조사를 검토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대한 파악 및 그 대안을 마련한

봉은사는 역삼청소년수련관에 216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특히 청소년 상담실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청소년지원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을 위한 ‘새싹학교(가칭)’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봉은사는 업무지원팀, 목적사업팀, 수익사업팀, 특화사업팀의 조직을 갖출 예정이다.

한성우 청소년수련관장 내정자는 “역삼 청소년수련관이 21세기를 여는 청소년들의 꿈의 요람, 신바람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준비를 하

고 있다”며 “운영에 있어서도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과 인적자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봉은사는 이에 앞서 1999년 4월 서울시로부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모범적인 운영으로 지난 해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회복지사업, 점차 서울전역 확대 파라미타와 협조 다양한 활동 전개

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청소년포교사업 전형을 마련한 성공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관내 각종 청소년 단체, 학교 등과 연계해 21세기를 여는 청소년들의 꿈의 요람, 신바람의 공간으로서 만들고자 합니다.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구로서 어울리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21세기형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흐름에 앞서가는 청소년 활동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지스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봉은사의 사회복지사업이 보다 활발해졌다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취임하였을 때 강남을 대표하는 사찰인 봉은사는 그 규모에 비해 사회복지

작은 보시 큰 자비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밀반찬 배달사업 그리고 무료진료를 하는 등 지역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실이 청소년 복지사업인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복지사업과 포교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입니까?

“봉은사는 강남뿐 아니라 서울 한강 이남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그 사격에 맞게 1차적으로는 강남지역, 2차적으로는 인접한 서초,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등 주변 지역, 3차적으로 서울지역까지 포괄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강남사원연합회와 함께 다양한 포교활동과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봉은사에서 주최한 ‘장애인나들이’ 행사.

사회복지와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는 강남 봉은사는 1996년부터 ‘작은보시 큰자비실천운동’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돕기’, ‘각종 재난시 기금모금’,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을 펼치고 있다.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은보시 큰자비실천운동’은 신도들이 저금통을 분양 받은 후 1개월에 1회씩 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강

복지도량 거듭나는 봉은사

남구내 무의탁독거노인들에게 밀반찬 배달사업을 매주 2회씩 진행하고 있다. 30여 명의 봉사팀으로 구성된 밀반찬배달사업은 매주 화, 금요일 반찬을 직접 만들어 독거노인 가정으로 배달하는 일을 1회도 거르지 않고 진행해 강남구 관내에서 모범적인 운영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진료사업은 현재까지 186차에 걸쳐 내과, 한방과, 치과 등 2만여명의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무료진료사업은 1999년 5월부터 소외된 이웃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복지·포교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 ‘작은 보시 큰 자비 실천운동’ 큰 반응

또 3월 4일 구성된 ‘봉은사 사회복지위원회’는 무료진료, 무료급식,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활동을 체계화, 구체화하고 있다. 강남구 26개동 신도 대표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는 발족식 후 강남구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은 수서동 50세대를 선정하여 쌀을 전달했으며, 선재의료

복지위원회는 최근 봉은사 조실 석주큰스님이 운영하는 운양 보문복지원 안양원(노인복지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봉은사에서 ‘보문복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유치해 전액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하고 있다.

우란분절 49일 지장기도 봉행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 올리는 이 작은 등불 하나가 먼저가신 조상님들의 왕생극락 인도하는 등불 되게 하시고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올리는 이 작은 등불, 등불이 모여 유주무주 일체 고탈들의 천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성 인로왕보살이시어 오늘 올린 등으로써 모든 인연영가들을 인도하는 빛으로 삼으소서.

오는 8월 12일은 우란분절(백중)입니다. 이날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져 고통 받는 어머니를 위해 덕이 높으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 그 범력으로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시게 하신 날로, 미혹에 빠져 거꾸로 매달린 듯 고통 받으며 악도를 해매는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려 봉은사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7대 조상, 친족 및 이듬도 받지 못하고 사라져간 태령, 유주무주 모든 인연 영가들을 위하여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우란분절(백중) 49일 지장기도에는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49분들께서 각 재 마다 동참 하시어 금강경을 독경하시며 장엄한 지장기도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모든 인연영가들에게 새로운 천도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효심이 불심의 근본임을 생각하시며, 나로 인해 비롯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의 원을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 ◆천도재일정
- 입재 : 6월 25일(수) 초재 : 7월 1일(화) 2재 : 7월 8일(화) 3재 : 7월 15일(화)
 - 4재 : 7월 22일(화) 5재 : 7월 29일(화) 6재 : 8월 5일(화) 막재 : 8월 12일(화)

별도의 기도비 없이 영가등 접수만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각 재마다 합동천도재를 지내드리며, 대웅전 앞마당에 등을 올리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 종무소 접수처 ☎ 3218-4000

봉은불교문예대학 수강생 모집

강남구 삼성동 위치한 봉은사에서는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문예 기초 및 창작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개월 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각 강좌별로 문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선생님을 초빙하여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사 및 강의시간

분 야	강 사	강 의 시 간	장 소
시	민 영(시 인)	매주 수 오후 3시 - 4시 30분	동법당
소설	안장환(소설가)	매주 수 오후 4시 30분 - 6시	동법당
수필	한상렬(수필가,평론가)	매주 월 오후 4시 30분 - 6시	동법당
아동문학	신현덕(아동문학가)	매주 월 오후 3시 - 4시 30분	동법당

- ▶ 특 전 : 강의 기간동안 제출된 우수한 작품 문단에 등단기회 부여
봉은불교문학상 제출 자격 부여
봉은문학회 회원 자격 부여
- ▶ 분 야 : 시, 소설, 아동문학, 수필 등 4분야
- ▶ 개 강 : 6월 16일 일요일 - 3개월 과정
- ▶ 수강료 : 9만원
- ▶ 입학식 : 6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 보우당

문의 : 봉은사 포교교육팀 (☎ 516-5652, 3218-4815)